

고교 선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 상 범 역
입시 토크

대한민국 입시 지형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과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은 고등학교 선택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핵심은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다. 기존의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1등급 구간이 10%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내신 등급 자체만으로는 정밀하게 이뤄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학생이 어떤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이수했는지를 보여주는 '교육과정 편성표'다.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업적 역량과 진로의 깊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른다.

◆ 고교 유형별 구조적 강점과 약점을 입체적으로 해부해야 길이 보인다

현재 고교 체제는 영재학교·과학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로 분류되며, 개편안에 따라 유불리의 지형도 역시 재편되고 있다. 먼저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상위권 내부의 무한 경쟁 부담이 완화되면서, '고급 수학'이나 '화학 실험' 같은 심화 전문 교과 이수 이력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독보적인 무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역시 학교가 보유한 풍부한 심화 과목 개설 역량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의 노후우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학들이 내신 변별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 학교의 강력한 수능 대비 환경은 큰 강점이 된다. 다만 우수 자원들과의 경쟁 속에서 1등급(10%) 이내에 진입하는 것은 여전히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반면 일반고등학교의 가장 확실한 무기는 내신 확보의 용이성에 있다. 1등급 구간이 10%로 넓어짐에 따라, 일반고에서 전교 상위권을 유지하는 전략은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지역균형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학교 역량에 따라 선택 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기록 역량이 편차가 존재할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내신 1등급을 확보하고도 대학이 요구하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고배를 마시는 리스크도 엄존한다. 결국 일반고 선택의 핵심은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안착시켰는지, 그리고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달려 있다.

◆ 아이의 메타인지와 성향이 배제된 고교 선택은 실패를 양산한다

많은 학부모가 범하는 오류는 '학교의 역량'을 '아이의 역량'과 동일시하는 착각이다. 아무리 교육과정이 훌륭한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더라도, 학생 스스로가 그 환경을 소화해 낼 용기와 회복탄력성이 없다면 그 화려한 환경은 오히려 독이 된다. 고교 선택의 진정한 출발점은 자녀의 인지적 역량과 성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즉 메타인지에서 시작돼야 한다. 학습 동기가 내재적이고 압박감이 높은 환경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멘탈을 지닌 학생이라면 특목·자사고의 치열한 경쟁 환경이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반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향의 학생이라면, 우수한 일반고에 진학해 안정적인 내신 고지를 선점하고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결론적으로 2028 대입 시대의 고교 선택 전략은 '어느 학교가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가'라는 일차원적 질문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의 메타인지적 역량을 중심에 두고 변화된 제도의 유불리를 냉정하게 대입해 최적의 교육 트랙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이 혼돈의 입시 지형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고교선택이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그 이름 찬란한 '다이닉스 신화'



기 지 수 첩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아성다이닉스'. 최근 유통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흥미로운 농담이다. 지난해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과 49%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반도체 거인 SK하이닉스에 다이닉스를 견주어 부르는 말이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최근 다이닉스가 실적표로 증명해 낸 위상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아성다이닉스의 지난해 매출은 4조 536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진짜 놀라운 건 수익성이다. 영업이익 4424억 원을 기록하며 이마트(별도기준 2771억 원), 롯데

마트(-70억 원) 등 전통의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들을 가볍게 제쳤다. 영업이익률은 9.8%에 달한다. 통상 1~3% 수준에서 치열하게 마진 싸움을 벌이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반도체급' 여닝 서프라이즈다.

사람들은 이 화려한 숫자를 보며 '다이닉스 신화'를 말하지만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지점은 겉으로 드러난 영업이익률이 아니다. 반도체 신화의 핵심이 미세 공정을 제어해 불량률을 낮추는 '수율(Yield)'에 있듯 다이닉스의 지속 가능한 신화 역시 다이닉스만의 '수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이닉스에게 수율이란 곧 '품질 관리'를 의미한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 100원을 남기는 바리다매 구조에서 품질 불량으로 인한 반품이나 고객 이탈은 치명적이다. 첨단 반도체 웨이퍼에서 한 장의 불량도 허용하지 않

으려는 노력처럼 다이닉스의 매대에 올라오는 수만 가지 저가 제품들도 불량률 제로를 향해 끝없이 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소비자들이 다이닉스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싸서'가 아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 나온다고?'라는 경이로움 즉 압도적인 가성비 비에 지갑을 여는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핑계로 품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이닉스'라는 찬사는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

반도체 황금기를 이끈 힘이 기술 혁신이듯 유통 시장의 불황 속에서 다이닉스가 보여준 독주 체제는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왕관을 쓴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철저한 수율 관리로 고객의 신뢰와 사랑에 응답하는 것만이 '다이닉스 신화'를 일시적인 농담이 아닌 위대한 기록으로 남기는 유일한 길이다. /seoh@metroseo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4일 (음 4월 1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휴식을 취하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세요. **60년생** 비밀을 누설하지 마세요. **72년생** 주변 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84년생** 오늘 하루는 심신이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 49년생** 성과는 후에 골고루 돌아옵니다. **61년생** 음악의 조화가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73년생** 작은 선물로 사랑하는 감정이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85년생** 연애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 50년생** 가는 길이 험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62년생** 여행을 떠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하세요.
- 51년생**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신중하세요. **63년생**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75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7년생** 성급한 판단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 52년생** 어려운일이 생기면 끈기있게 해결하세요. **64년생** 주변의 일에 신경을 쓰면 회를 당합니다. **76년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8년생** 원만한 대인관계로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 53년생**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5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소리대로 처신하세요. **77년생** 심고 가꾼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89년생** 주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 54년생**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66년생** 시험 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78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니 기쁨이 가득합니다. **90년생** 노력 없는 요행수를 비례서는 안 됩니다.
- 55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67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79년생** 건강에 유의하고 체력관리에 힘을 쓰세요. **91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춰서 생각해 보세요.
- 56년생**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68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92년생** 물가에 가려져서 조금만 미루세요.
- 57년생** 주위에 신뢰를 차곡차곡 쌓을 때입니다. **69년생** 일에 진척이 있겠습니다. **81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93년생**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 58년생**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70년생** 미련이 남아있으니 재력에 손실이 많습니다. **82년생** 고난과 갈등이 있습니다. **94년생** 현명한 지혜와 건강한 육신이 자랑스럽습니다.
- 59년생** 따질 만한 일이 아니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71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83년생** 파트너를 잘 알아보아 주세요. **95년생** 진로문제도 잠시 갈등이 있겠습니다.

김상회의四季 만천과해, 큰 그림

사람은 확증편향이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익숙한 것에는 의심을 덜 품는다. 이런 심리를 활용한 전략이 중국 병법 36계의 하나인 만천과해(滿天過海)다. 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넌다는 뜻의 이 말은 당나라 태종 때 생겨났다. 당 태종이 바다 건너기를 두려워하자, 신하가 배 위에 집을 지어 왕과 술잔을 나누는 사이 배를 움직여 바다를 건넌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큰 그림을 완성하는 전략이다. 명리학의 눈으로 만천과해 전략을 해석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과 운세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의 시너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자기의 성정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아야 사주에 담겨있는 대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만천과해 전략은 현대 사회의 직장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이직을 준비하면서 요란하게 떠돌고 다니는 사람이 가끔 있다.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최선의 안행은 평범함이다.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안행으로 어떤 변화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직장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발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다. 운세를 바꾸어 보려고 갖은 애를 쓸때 평소보다 무리해서 갖은 시도를 하다가 되려 더 큰 손실을 본다. 운이 나쁜 시기에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시기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야 한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안으로는 꼭 필요한 실력을 탄탄하게 쌓는 것이다. 쌓은 실력이 새로운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와 어울리면 강한 폭발력을 발휘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9	2	1		4
			8	7	3		
1	4		3				
2	5				4		
4	6					3	1
		3				2	5
				4		9	7
5	4	8	2				6

6			9	2	1		4
			8	7	3		
1	4		3				
2	5				4		
4	6					3	1
		3				2	5
				4		9	7
5	4	8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2	8	7	6	9
6	7	8	9	2	1	2
2	6	7	8	1	9	2
9	2	9	1	7	6	8
1	8	2	8	2	9	7
8	7	6	1	9	2	2
8	2	6	9	9	2	1
2	9	8	2	8	7	1
7	9	1	2	6	2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